

# 공존

세계인과 소통하는 공감매거진  
KOREA IMMIGRATION SERVICE MAGAZINE

## K-Synergy

코트를 향한 도전,  
몽골 소녀의 한국 배구 이야기  
몽골 출신 배구선수 인쿠시

## KIS 24H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자동심사전담반의 하루

## ON AIR KIS

법무부 최초 신조 감시정  
'부산진호' 취항 현장



## 함께 살아가는 봄을 맞이하며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는 봄은 우리에게 늘 새로운 출발을 떠올리게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내·외국인에게도 이 계절은 또 하나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번 봄호에서는 한국에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는 이들의 삶, 그리고 우리 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존」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한국 프로배구 무대에서 활약하며 도전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있는 몽골 출신 배구선수의 이야기와, 42개국 단기방문 외국인의 편리한 자동출입국심사 이용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자동심사 전담반의 하루, 중앙아시아 출신 동포들을 비롯한 다양한 이주민들이 모여 만들어내는 인천 연수구 ‘함박마을’의 다양한 풍경 등을 소개합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도 새로운 마음으로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발표하여 해외 고급인재 유치, 민생경제 활성화, 안전한 국경관리, 국민이 공감하는 사회통합, 외국인 인권보호를 포괄하는 중장기 국가전략으로서 이민정책의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올해가 우리 본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이민정책의 원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국내·외 체류 동포 사회의 오랜 숙원이었던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조치를 단행하여 출신국에 따른 차별 논란을 해소하고 86만 국내 체류 동포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역사적 전환을 이루어냈습니다.

따뜻한 봄날처럼 서로의 일상이 조금 더 가까워지는 사회, 다양성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대한민국을 위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차 용 호**

## Welcoming Spring Together

Spring, the season that marks the beginning of a new year, always reminds us of a fresh start.

For the countless Koreans and foreigners living in Korean society, this season also signifies a new beginning.

In this spring issue, we feature the lives of those taking on new challenges in Korea, as well as the spirit of “coexistence” that our society is building together.

We introduce the story of a Mongolian volleyball player who is making his mark on the Korean professional volleyball scene and writing his own story of challenge; a day in the life of the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Immigration and Foreigners’ Affairs Office’s automated inspection task force, working tirelessly to ensure convenient automated immigration clearance for short-term visitors from 42 countries; and the diverse scenes of “Hambak Village” in Yeonsu-gu, Incheon, created by a community of immigrants, including compatriots from Central Asia.

The Immigration and Foreigners Policy Headquarters is also welcoming spring with a fresh outlook.

Last March, we announced the “2030 Immigration Policy Future Strategy,” presenting the direction and standards for immigration policy as a mid- to long-term national strategy encompassing the recruitment of high-caliber talent from abroad, the revitalization of the people’s economy, secure border management, social integration that resonates with the public, and the protection of foreigners’ human rights.

We expect this year to mark the first year of the new immigration policy being promoted by our headquarters.

Furthermore, we have implemented the long-awaited integration of residency status for compatriots (F-4), a long-standing aspiration of the domestic and overseas compatriot communities. This historic shift resolves controversies over discrimination based on country of origin and enables the 860,000 compatriots residing in Korea to settle down stably.

For a society where our daily lives grow closer, like a warm spring day, and for a Republic of Korea where diversity harmoniously coexists, the Immigration and Foreigners Policy Headquarters will continue to strive.

Thank you.

**Cha Yong-ho,**  
Commissioner Korea Immigration Service  
Ministry of Justice

# CONTENTS



06



18



28

통권 75호(비매품)

편집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기획과

발행일 2026년 4월

발행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연락처 02-2110-4019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기획·편집·디자인 (주)위닷(02-6205-9246)



www.immigration.go.kr  
웹진으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 STORY Zone

**04 K-Style**  
붉은 낫선 땅에서도 같은 색으로 온다

**06 K-Synergy**  
코트를 향한 도전, 몽골 소녀의  
한국 배구 이야기  
몽골 출신 배구선수 인쿠시

**10 Me&You, Ours**  
재한 외국인 & 직원들 미담사례

**12 Hi-Story**  
바다를 건너온 사람,  
처용은 신라의 외국인이었을까

**14 Diaspora**  
골목 끝에서 만나는 작은 중앙아시아,  
인천 함박마을

## KIS Zone

**18 KIS 24H**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자동심사전담반의 하루

**22 Zoom In KIS**  
재외동포 체류자격 하나로 통합된다

**26 Briefly KIS**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한국에 사는 외국인 169만 명, 직장과  
생활 모습은 어떨까?

**28 ON AIR KIS**  
법무부 최초 신조 감시정 '부산진호' 취항 현장

## SHARE Zone

**32 Catch-Up KOREA**  
분리수거로 읽는 한국 사회

**34 KIS News**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주요 소식

**36 KIS Q&A**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무엇이 달라지나요?

**38 For Readers**  
<공존> 독자들을 위한 이벤트

봄은 낯선 땅에서도  
같은 색으로 온다

# SPRING IS



# HERE

아침 공기가 부쩍 따뜻해진 4월의 어느 날.  
바쁘게 지나쳤던 골목길의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 같다.  
어제보다 조금 더 부드러워진 바람,  
아파트 화단 끝에 활짝 피어난 작은 꽃들.  
편의점에서 차가운 커피를 들고 나오며  
휴대전화로 고향의 가족에게 사진 한 장을 보낸다.

“여기도 봄이 왔어요.”

이 계절의 온기는 누구에게나 같은 방식으로 전해진다.  
그리고 그 순간, 낯설던 도시는 조금씩  
살고 있는 곳이 아니라 ‘살아가는 곳’이 된다.

# 코트를 향한 도전, 몽골 소녀의 한국 배구 이야기

몽골 출신 배구선수 인쿠시



레드스파크스 연습 경기장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선수가 있다. 밝은 미소와 힘찬 목소리로 코트를 누비는 몽골 출신 배구선수 인쿠시다. 한국에 온 지 어느덧 4년. 낯선 나라에서 시작한 도전은 이제 그의 삶이 되었고 한국은 점점 '두 번째 고향'이 되어가고 있다. 배구를 향한 열정 하나로 한국에 온 인쿠시는 오늘도 코트 위에서 자신의 꿈을 향해 한 뼘 더 높게 뛰어 오른다.



# Taking on the Court

## 몽골에서 시작된 배구 인생

인쿠시가 처음 배구공을 잡은 것은 아주 어린 시절이었다. 어머니가 배구선수였기 때문이다. 자연스럽게 체육관을 드나들며 공을 만지던 시간이 쌓이면서 배구는 그의 삶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존재가 됐다. 몽골에서도 배구를 계속했지만 환경은 한국과 많이 달랐다. 몽골에서는 배구가 전문 직업이라기보다는 취미 활동에 가까운 경우가 많다고. 대부분의 선수들이 다른 직업을 가지면서 운동을 병행한다.

“몽골에서는 배구 선수라는 직업이 거의 없어요. 보통은 고등학교까지 운동하고 나면 다른 길을 찾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때 인쿠시 역시 배구를 그만둘 생각을 했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공부를 위해 유학을 떠날 계획도 세워 두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왔다. 한국에서 배구를 배워 보겠냐는 제안이었다. 처음에는 망설였다. 낯선 나라에서의 생활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모님의 권유로 “1년만 경험해 보자”는 마음으로 한국행을 결정했다. 그 선택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될 줄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다.



**낮선 한국에서의 도전**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인쿠시는 겨우 열여섯 살이었다. 가족과 떨어져 외국에서 생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처음에는 부모님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는 힘든 시간을 버티며 배구에 더욱 집중했다. 한국의 체계적인 훈련 시스템은 그에게 새로운 자극이 되었다. 몽골에서 경험했던 배구와는 전혀 다른 세계였다.

“한국은 초등학교부터 프로까지 시스템이 잘 되어 있잖아요. 훈련도 훨씬 체계적이고 디테일했어요. 그런 부분에 정말 많이 놀랐어요.”

훈련 강도도 높았지만 그만큼 실력도 빠르게 성장했다. 특히 공격 기술이 크게 향상됐다고 말한다. “처음에는 잘 안되던 기술들이 어느 순간 딱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정말 재미를 느껴요. 코트에서 웃음이 나올 정도예요.” 이처럼 배구는 힘들지만 동시에 큰 즐거움을 주는 스포츠였다.

**방송 이후 찾아온 변화**

인쿠시에게 또 하나의 큰 전환점은 방송 출연이었다. 예능 프로그램 ‘신인 감독 김연경’에 출연해 김연경 선수와 함께 훈련하며 많은 시청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프로그램에서 ‘필승 원더독스’ 팀의 주전 공격수로 활약하며 배구 팬들에게 이름을 알렸다.

“저는 그냥 감독님에게 많이 배우고 싶어서 나갔는데 사람들이 응원해 주셔서 정말 놀랐어요.” 방송을 통해 그는 다양한 선수들과 함께 훈련하며 많은 것을 배웠다. 특히 세계적인 선수들과 함께한 경험은 잊지 못할 시간이었다.

**“한국에서 계속 배구를 하고 싶어요. 기회가 된다면 프로 선수로 더 오래 뛰고 싶고요. 또 계속 발전하는 선수, 그리고 코트에서 웃으면서 배구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기술적인 부분도 많이 배웠지만, 선수로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많이 배웠어요.” 그중에서도 가장 크게 바뀐 것은 생각하는 방식이었다. 예전에는 실패를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조금 달라졌다. “예전에는 ‘실수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일단 해보자’라고 생각하려고 해요.”

이러한 긍정적인 태도는 그의 플레이에도 영향을 주었다. 이후 그는 프로 무대에서도 경험을 쌓았다. 2025-2026 시즌 동안 프로배구단 정관장 레드 스파크스에서 아시아 쿼터 대체 선수로 합류해 2026년 3월까지 V리그 무대를 경험했다.

**프로무대 데뷔전에서 인상적인 출발**

인쿠시의 프로 데뷔 과정은 예상치 못한 기회에서 시작됐다. 정관장이 아시아 쿼터 선수의 부상 공백을 메우기 위해 그를 대체 선수로 영입한 것이다. 당시 유학 비자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던 그는 몽골로 돌아가 취업 비자로 체류 자격을 변경한 뒤 국제이적동의서(ITC)를 받아 V리그 선수로 등록했다.

데뷔전은 2025년 12월 19일 GS칼텍스전이었다. 첫 경기에서 블로킹과 서브 에이스를 포함해 11점을 기록하며 인상적인 출발을 했다. 이후 몇 경기에서는 득점이 주춤했지만 점차 공격 비중을 늘리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2026년 들어서는 상승세가 더욱 뚜렷했다. 한국도로공사전에서 13점을 기록한 데 이어 흥국생명전에서는 16점을 올렸고, IBK기업은행전에서는 18점을 기록하며 V리그 데뷔 후 한 경기 최다 득점을 세웠다. 경기마다 득점이 늘어나는 모습에 팬들과 팀 관계자들도 그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했다. 정관장 고희진 감독





독 역시 그의 노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인쿠시는 정말 열심히 하는 선수입니다. 한국에 배구 유학을 온 선수 아닌가요. 우리가 응원해줘야 몽골에서도 더 응원할 겁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V리그 경험은 인쿠시에게 큰 의미를 남겼다. 더 높은 수준의 경기와 많은 팬들 앞에서 뛰는 경험은 선수로서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됐다.

### 한국에서 이어가고 싶은 꿈

한국에서 생활한 지 4년이 지나면서 인쿠시는 한국을 점점 더 가까운 곳으로 느끼게 되었다. 낯설었던 환경도 이제는 익숙해졌다. “한국은 저에게 두 번째 고향 같은 느낌이에요” 문화적으로도 몽골과 비슷한 점이 많아 적응이 비교적 쉬웠다고 한다. 음식도 좋아한다. 특히 비빔밥과 삼계탕 같은 한식을 즐겨 먹는다.

앞으로의 목표는 분명하다. 한국 프로 배구 무대에서 더 오래 뛰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 국적 취득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 물론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 하지만 배구를 향한 그의 마음은 확고하다.

“한국에서 계속 배구를 하고 싶어요. 기회가 된다면 프로 선수로 더 오래 뛰고 싶고요. 또 계속 발전하는 선수, 그리고 코트에서 웃으면서 배구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몽골에서 온 한 소녀의 도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낯선 땅에서 시작된 작은 꿈은 이제 더 큰 목표로 자라나고 있다. 그리고 인쿠시는 오늘도 코트 위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증명해 나간다. 🎯

### 인쿠시가 말하는 한국어 잘하는 방법

“완벽하게 말하려고 하기보다, 계속 말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사람들과 많이 대화하기**  
친구, 팀원과 대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익히기



**틀려도 계속 말하기**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직접 말해보는 것이 중요



**일상에서 반복 사용하기**  
훈련할 때는 물론 학교, 생활 속에서 계속 한국어 사용

### 인쿠시가 좋아하는 한국 음식

“한국 음식은 따뜻하고, 먹으면 힘이 나는 느낌이에요.”

#### 밥 중심 한식

몽골 음식과 비슷해 더 익숙하게 느껴진다.

#### 비빔밥

여러 재료가 어우러져 맛과 균형이 좋다.

#### 삼계탕과 국밥

몸에 좋고 따뜻해서 좋아하는 음식

# 나와 너를 이어주는 따뜻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들의 희망

## 따뜻한이야기

대전출입국·외국인 사무소의 이라영, 김호수, 남재욱 선생님!  
세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감동 스토리를 공유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선병원에서 의료사회복지사로 근무 중인 김○나라고 합니다.

2025년 12월 20일 중국 동포인 환자분이 뇌경색으로 응급실 경유 후 중환자실에 입원하였고 좌측 마비로 인해 후유 장애가 남을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찾아오는 보호자나 가족은 없었으며, 대전역 인근 여인숙에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해 오던 중 여관 주인에 의해서 발견되었습니다. 신체적 마비뿐만 아니라 인지와 언어장애도 발생하여 정확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치료비 문제와 퇴원 계획을 협의할 수 없어 이에 대한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이하 대전사무소)와 대전선병원은 2022년 양 기관이 진료 지원을 위해 협약식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후 위기에 처한 외국인 환자가 발생할 경우 대전사무소 이라영 계장님께 많은 도움을 받아왔습니다. 이번에도 환자와 병원이 처한 어려움에 대해 대전사무소에 협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항상 밝은 미소와 긍정적인 에너지로 적극 행정을 보여주신 이라영 계장님의 도움으로 연계해주신 1층 담당 직원분께서 한국에 등록된 환자 가족이 있는지를 파악해 주셨고, 환자분의 비자 상태를 알려주셔서 체류기간이 도과하였음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중국 송환을 함께 상의해 주시기 위해 2층에 계신 김호수 팀장님께서 친절히 응대해 주셨습니다. 대전사무소에서 남재욱 계장님을 담당자로 지정하여 중국 대사관에서 중국 지방정부와 상의하여 가족 찾기와 이후 중국 송환 과정을 적극적으로 논의해 줄 것을 함께 호소해 주셨습니다.

대전사무소 직원분들 덕분에 대사관에서도 잘 협조해 주셔서 환자분 연변행 비행기를 탑승할 수 있었고 공항에 가기까지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지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2026년 2월 19일 from. 김○나



###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김호수·이라영·남재욱 주무관

체류외국인의 증가로 여러 기관에서 외국인 관련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보호자 없는 외국인이 장기간 입원했을 때 병원과 환자 모두에게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선병원, 주한중국대사관 등 여러 기관의 힘을 모아 장기간 입원한 외국인을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한 이번 일이 선례가 되어, 전국의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전선병원 사회복지사님! 감사합니다.

### 인천출입국 편영주 담당 공무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출입국 14번 창구 편영주 담당 공무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12월 16일 캄보디아 국적의 배우자와 영유아 자녀의 F-3동반비자 변경 접수 과정에서, 형식적인 심사를 넘어 가족의 현실적인 상황과 인도적 사유를 세심하게 고려해 주셨습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동반된 가정의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해 주시고, 절차 전반을 명확하고 친절하게 안내해 주셔서 불안함 없이 행정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복잡하고 민감할 수 있는 사안이었음에도 공정함과 따뜻한 배려를 동시에 보여 주신 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출입국 행정이 단순한 규정 집행을 넘어 사랑을 향한 행정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026년 1월 22일 from. 박○수



### 인천출입국·외국인청 편영주 주무관

당연히 제가 해야 하는 업무를 한 것일 뿐인데 이렇게 칭찬글을 올려주시니 썩스러우면서도 감사합니다. 현장에서는 한정된 시간 내에 많은 업무를 처리해야 하다 보니 친절한 응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 또한 예외는 아닐텐데 이번 기회를 빌어 좀더 노력하는 공무원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하게 됩니다. 힘든 격무에도 적극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체류팀 직원 여러분들께 힘찬 박수와 응원을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 어릴 적 꿈을 한국에서 이루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의 나라이자, 좋아하는 한국어를 맘껏 말하고 배울 수 있는 한국이 좋기도 했지만 한국에 처음 온 당시에는 볼리비아 사람을 거의 찾아볼 수도 없어서 많이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한국말을 못하는 다른 결혼이민자들을 돕고 싶었고, 먼저 제 한국어 실력을 높여야겠다는 생각에 한국어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제 꿈은 교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그 꿈을 이루고자 2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는 뭉뚱이 기뻐했습니다. 취업의 장벽은 높았지만 2018년 서울시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교육강사'가 되어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복지관 등에서 수많은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을 바라볼 때, 저는 어릴 적 꿈을 이룬 듯 뿌듯하고 가슴 뭉클했습니다.

이곳 아름다운 한국에서 이민자로서의 삶을 시작한 지 27년이 흘렀습니다. 저에게 문을 열어주고 사회 봉사활동을 넘어 제 꿈까지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당당히 대한민국의 군복무를 마치고 각자 자기 자리에서 뭉을 하는 든든한 일꾼으로 자랐습니다. 끝으로 제 마음을 적었던 글로 끝맺음을 대신합니다. "대한민국,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

모니카(27년차 이민자, 국적 볼리비아)



# 處容

## 바다를 건너온 사람, 처용은 신라의 외국인이었을까



한국의 오래된 이야기 속에는 외국인과 관련된 흥미로운 기록이 남아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가 처용 설화다. 처용은 약 1,200년 전 신라시대에 등장하는 인물로 지금은 한국 전통춤인 처용무와 처용탈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국적인 얼굴의 처용탈은 처용이 아랍에서 온 상인일지도 모른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 처용은 정말 서역인이었을까?

## 바다를 건너온 사람

처용 이야기는 <삼국유사>라는 역사 기록에 등장한다. 기록에 따르면 어느 날 신라 헌강왕이 동해의 울산 지역을 방문했을 때 갑자기 짙은 안개가 바다를 덮었다. 신하들은 바다의 용왕이 노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왕은 용왕을 위해 절을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그러자 안개가 걷히고 용왕이 일곱 아들과 함께 나타났다. 그중 한 사람이 바로 처용이었다. 왕은 처용을 수도 서라벌로 데려와 벼슬을 주고 살게 했다는 이야기다.

## 역신을 막아내다

처용설화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은 '역신 이야기'다. 어느 날 밤 처용이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 옆에 낯선 존재가 함께 있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병을 퍼뜨리는 역신이었다.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화를 냈겠지만 처용은 오히려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었다. 처용의 너그러운 태도에 감동한 역신은 이렇게 약속한다. "앞으로 처용의 얼굴이 있는 집에는 들어가지 않겠다."

그 뒤로 사람들은 집 문에 처용의 얼굴을 그려 붙이기 시작했다. 병과 나쁜 기운을 막기 위한 풍습이 된 것이다.

## 외국에서 온 상인?

설화에 등장하는 처용의 정체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다. 일부 학자들은 처용이 외국에서 온 상인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한다. 당시 울산은 국제 무역항이었고 많은 외국 상인들이 신라를 찾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전해 내려오는 처용탈이 이국적인 모습이라는 점 역시 이 해석을 뒷받침한다. 진한 붉은 색의 피부, 부리부리한 눈, 커다란 코, 주걱턱 등의 특징은 동양인보다는 서역이나 아랍 사람들의 얼굴과 비슷하다.

## 신비로운 힘을 가진 존재?

하지만 한국 민속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또 다른 해석을 낳는다. 붉은색은 예로부터 잡귀와 역병을 물리치는 색으로 여겨졌다. 앞서 역신 이야기에서 '처용탈'은 역병을 막는 상징물로 등장한다. 노래와 춤으로 귀신을 물리는 주술적 행위는 처용을 신령한 힘을 가진 존재로 바라보게 한다.

### 처용무

한국의 전통 궁중 춤. 처용탈을 쓰고 춤을 추며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평화를 기원하는 의미를 가진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 아랍 기록 속 '황금의 나라'

처용 설화는 당시 신라가 외국과 활발히 교류하던 나라였다는 사실을 말해주기도 한다. 신라시대에는 중국뿐 아니라 중앙아시아와 아랍 지역 상인들도 바다를 통해 동아시아로 이동했다. 울산 같은 항구에는 다양한 나라의 상인들이 드나들었다. 아랍과 페르시아 기록에도 신라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한다. 중세 아랍 학자들은 신라를 '황금의 나라'라고 기록했는데 공기가 맑고 살기 좋은 나라라서 한번 들어가면 떠나고 싶지 않다고도 적었다.

## 외국인에게 열린 나라 '신라'

이처럼 신라는 외국인에게 열린 사회였다. 외국 상인들이 신라에 정착하기도 했고 때로는 관직을 받기도 했다. 헌강왕은 처용에게 '금간'이라는 관직을 주었고, 원성왕 시대의 기록을 보면 서역인(아랍이나 중앙아시아)이 왕을 보호하는 무사 역할을 했을 가능성도 엿보인다. 이러한 국제 교류의 중심에는 바닷길이 있었다. 특히 신라 장군 장보고가 만든 해상 무역망은 동아시아 바닷길을 안전하게 만들었고, 그 덕분에 먼 나라 상인들도 신라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처용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야기는 우리에게 수많은 상상력을 던져준다. 바다를 건너 온 낯선 얼굴, 신비로운 힘을 가진 존재는 오늘날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처용무'를 통해 우주의 조화와 평화를 상징하는 춤으로도 계승되고 있다. 또 한 가지, 이들 이야기를 관통 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한국이 아주 오래전부터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이 만나는 공간이었다는 것이다. 🌐

### 역신

옛날 사람들은 전염병을 퍼뜨리는 존재를 '역신'이라고 불렀다. 병을 가져오는 신이나 귀신을 의미한다.

봄빛이 스며든 골목을 따라 걷다 보면 낯설면서도 따뜻한 풍경이 펼쳐진다. 익숙한 한글 간판 사이로 키릴문자가 보이고 빵 굽는 향기와 향신료 냄새가 바람을 타고 흐른다. 이곳은 인천 연수구에 자리한 함박마을. 고려인을 비롯한 다양한 이주민들이 모여 살며 만들어 낸 또 하나의 '한국 속 세계'다.

## 골목 끝에서 만나는 작은 중앙아시아 인천 함박마을



이  
주  
가  
만  
든  
풍  
경

함박마을(고려인 거주지)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함박마을©인천투어

## 골목이 만든 생활의 풍경 고려인의 시간이 흐르는 곳

한국의 도시 풍경은 늘 변화해 왔다. 그리고 그 변화의 한편에는 언제나 '이주가 있었다. 사람이 모이면 골목이 생기고, 골목이 이어지면 하나의 풍경이 된다. 함박마을은 그런 풍경의 한 자락을 보여준다. 낯선 언어와 문화가 자연스럽게 스며든 이곳은 지금, 봄을 맞아 또 다른 이야기로 채워지고 있다.

함박마을은 고려인 동포들이 정착하며 형성된 마을이다. 중앙아시아를 거쳐 한국으로 돌아온 이들의 삶이 이곳 골목에 켜켜이 쌓여 있다. 거리에는 러시아어 간판이 걸린 상점과 식당들이 이어지고 각국의 전통 빵을 파는 베이커리, 중앙아시아 식재료를 판매하는 가게들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다.

이곳의 일상은 평범하면서도 특별하다. 아이들은 한국어와 러시아어를 함께 사용하고, 이곳은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도 익숙하게 인사를 나눈다. 골목을 걷다 보면 문득 외국인 여행자가 된 듯한 기분이 든다. 서로 다른 시간이 겹쳐 만들어진 조용한 '공존'의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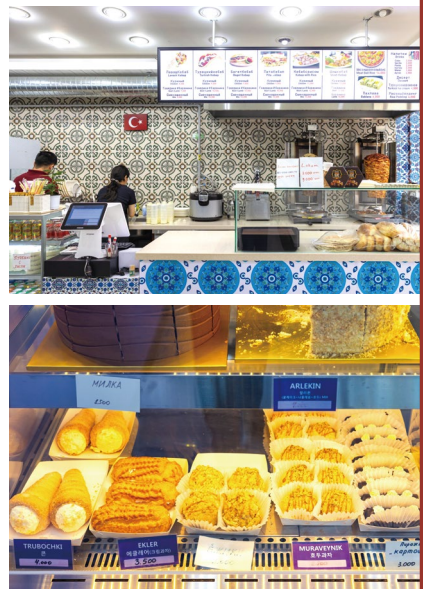
### 함박마을 한눈에 보기

#### 특징

국내 최대 고려인 마을로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고려인들이 정착하기 시작해 현재는 거주민의 절반 이상이 외국인으로 구성된 '리틀 러시아' 혹은 '러시아 타운'으로 불린다.

#### 이국적인 먹거리

러시아-우즈베키스탄 요리, 전통 빵, 할랄 음식 등 이국적인 식료품점과 식당, 다양한 상점들이 많다.



함박마을©인천투어



장미근린공원©한국관광공사  
연수체육공원©인천투어

Diaspora

**봄날, 골목에서 공원으로  
일상과 여행이 이어지는 길**

함박마을의 매력은 골목에서 끝나지 않는다. 조금만 걸음을 옮기면 봄 빛이 가득한 공원들이 이어진다. 연수구 일대의 공원들은 벚꽃과 나무들로 채워져 도심 속에서도 여유로운 산책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따뜻한 햇살 아래, 마을에서 사온 빵을 들고 공원을 찾는 사람들. 아이들은 뛰어놀고 어른들은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눈다. 이곳에서는 여행과 생활의 경계가 흐려진다.

**함박마을 주변 공원  
산책해요**

가장 먼저 찾길 좋은 곳은 문학장미공원(장미근린공원)이다. 이름처럼 다양한 장미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봄과 초여름 사이 특히 아름다운 풍경을 만든다. 함박마을에서 도보로 이동 가능한 가장 가까운 피크닉 장소이자 사진 명소로도 유명하다. 꽃이 머리 위로 쏟아지는 듯한 터널 안에서 찍는 사진이 가장 인기. (장미근린공원: 인천 연수구 연수동 137-40)

조금 더 넓은 공간을 원한다면 연수체육공원이 좋다. 넓은 잔디와 산책로, 운동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많이 찾는

2

Rose Pa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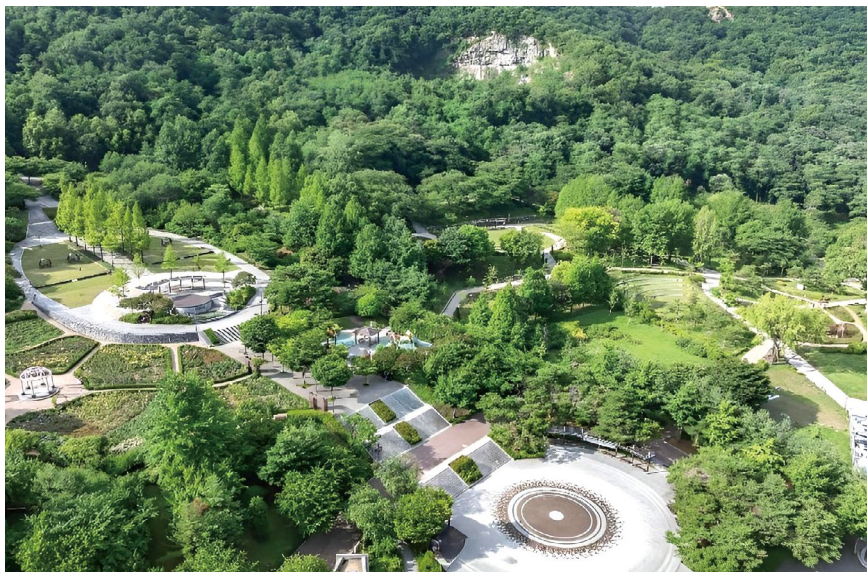


**함박마을  
봄나들이 TIP**

- 중앙아시아 빵 & 음식 체험
- 골목 산책 + 사진 촬영
- 인근 공원 벚꽃 산책
- 이국적인 카페·상점 방문

**문학장미공원**

인천 연수구 연수동 137-40



장미근린공원©한국관광공사

# Munhaksan Mountain

문학산  
인천 미추홀구 문학동



문학산에서 바라본 인천시 전경©인천투어

곳으로 따뜻한 날씨에는 돛자리를 펴고 쉬기에도 안성맞춤.(연수체육공원: 인천 연수구 청능대로 205)

자연을 조금 더 가까이 느끼고 싶다면 문학산 등산로를 추천한다. 완만한 코스가 많아 가볍게 오르기 좋고, 정상에 오르면 인천 시내와 바다가 함께 보이는 풍경이 펼쳐진다.(문학산: 인천 미추홀구 문학동) 이 외에도 대학공원, 문화공원은 일상 속에서 부담 없이 들를 수 있는 소박한 쉼터로 나무 그늘 아래 벤치에 앉아 잠시 쉬거나 천천히 산책하기에 알맞다.

## 서로 다른 삶이 만든 하나의 풍경 함박마을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

함박마을은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다. 낯선 문화는 시간이 지나며 익숙해지고, 익숙함은 또 하나의 지역 문화로 자리 잡는다. 이곳에서 만나는 풍경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 도시는 어떻게 변화하고,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 봄날의 햇살 아래, 함박마을을 걷다 보면 그 답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사람이 모이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이어질 때 도시는 더 넓어지고, 더 따뜻해진다. 함박마을은 그렇게 이주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한국의 모습이다. 📍



### 함박마을에서 즐기는 중앙아시아의 맛 4

**1 중앙아시아 음식의 정석, 차이하나**  
마을에서 가장 잘 알려진 중앙아시아 식당으로 본점과 2호점 모두 이 마을 안에 있다. 중앙아시아식 전통 꼬치인 샤슬릭, 우즈베키스탄 전통 음식인 소고기 필라프, 국시 등을 추천.

**2 우즈베키스탄의 맛, 쇼쉬**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의 옛 이름에서 유래한 쇼쉬는 현지의 전통과 맛을 내세운 음식점이다. 우즈베키스탄식 면 요리 라그만, 양고기 다리 필라프, 전통빵 삼사 등이 대표 메뉴.

**3 다양한 꼬치의 세계, 이홀라스**  
고려인들 사이에서 삼사와 꼬치 맛집으로 유명하다.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등 다양한 고기로 만든 양념 꼬치가 층층이 쌓여 있어 취향에 맞게 고를 수 있다.

출처: 인천투어 itour.incheon.go.kr

빠르고 편리한 입국, 그 순간을 만드는 사람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자동심사전담반의 하루**



자동심사전담반 권혁경 반장(6년차)

자동심사전담반 박수환 반장(6년차)

자동심사전담반 신영희 반장(7년차)

**KIS 24h** 

인천공항 입국장. 긴 비행을 마치고 도착한 승객들의 발걸음은 모두 같은 방향을 향한다. 조금이라도 빨리 여행을 시작하거나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그 수 많은 마음에 응답하기 위해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다. 빠르고 편리하게 입국심사를 완료할 수 있는 '자동출입국심사' 이용국가가 총 42개국으로 확대되면서 이들의 발걸음은 더 바빠졌다. 인천공항출입국 외국인청 '자동출입국심사전담반'의 하루를 따라가 본다.



AM 08:00

**"신속한 입국은 철저한 준비에서 시작"**

입국장이 열리기 전, 출근하면 가장 먼저 자동출입국심사대 장비를 점검합니다.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기기 작동 상태와 화면, 인식 장치까지 꼼꼼히 살펴야 하죠. 입국장에서는 작은 오류도 바로 혼잡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점검이 어찌면 가장 중요해요. 문제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 하루 업무의 시작입니다.



AM 09:30

**"빠르고 정확한 심사, 편리한 서비스"**

긴 시간 비행 끝에 도착한 승객들은 가능하면 빨리 입국장을 통과하고 싶어 해요. 자동심사대 앞으로 승객이 순식간에 몰려들죠. 하지만 10분도 지나지 않아 길게 늘어선 줄도 빠르게 줄어듭니다. 이런 장면을 볼 때마다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이하 SES)가 가진 의미를 실감합니다. 빠르고 정확한 심사과 선량한 여행객에게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 제도의 가장 큰 역할입니다.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AM 11:00

**"한국에 대한 첫인상을 책임지는 마음으로"**

승객이 스스로 자동화 기계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보니 SES가 처음인 분들은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다가가 손 위치를 안내하고 여권 인식 방법을 설명해 드리기도 합니다. 입국장에서의 경험이 한국에 대한 첫인상이 된다는 점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특히 지난해 SES 이용이 가능한 국가가 총 18개국으로 크게 확대됐고, 올해 3월 16일부터는 42개국으로 늘어났습니다. 실제 최근 자동심사대 이용률이 눈에 띄게 상승해 입국장 혼잡 완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PM 13:00

“등록한 번으로 달라지는 경험”

SES는 기존 대면 심사대에서 줄을 서는 시간에 비해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한 번 등록만 해주면 여권이 바뀌거나 비자를 새롭게 발급받지 않는 한 재입국 때 특별한 절차 없이 빠르게 통과할 수 있는데요. 그 사전등록 절차를 저희 자동등록전담반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자동출입국심사 사전 등록을 위한 장소(자동심사등록센터)도 4곳으로 늘려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SES가 현장에 잘 정착될 때까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PM 14:00

“한분의 승객에게 도움이 되는 일”

K-팝, 비즈니스 등 다양한 이유로 대한민국을 오가는 외국인 승객들이 SES를 통해 좀 더 편리하게 출입국심사를 받고 입국하는 모습을 보면 보람을 느낍니다. 종종 이전에 자동심사등록을 했던 외국인 중 재입국해 SES 스티커를 보여주며 ‘자동심사대 이용이 가능한지’ 묻는데요. 가능하다고 하면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볼 때, ‘그분의 여행에 도움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며 기분이 좋더라고요.



PM 16:00

“제도는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가능 국가는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발 항공기는 유럽 내 여러 국가 국민이 함께 타고 오는데, 기존에는 어떤 나라는 등록이 되고 어떤 나라는 안되는 상황이 발생해 안내에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번 SES 이용국가 확대를 통해 자동심사등록 이용률을 더욱 높이고 같이 온 가족, 친구들이 떨어지지 않고 같이 심사를 받을 수 있어 출입국심사 서비스 개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PM 18:00

“하루의 끝, 오늘도 이상무!”

큰 문제 없이 하루가 지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입국하고 불편 없이 이동하는 하루. 그 하루가 문제없이 반복될 때까지 발로 뛰겠습니다. ☺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가능 국가는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SES),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국민의 경우,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17세 이상) 입·출국 시 모두 이용 가능하며, 외국인의 경우 출국과 입국이 다른데요. 출국은 입국 시 사진과 지문정보를 제공하고 체류기간 내 출국하는 외국인이나 등록외국인은 모두 이용 가능하며, 입국은 등록외국인이나 자동심사등록 가능 국가 국민으로서 자동심사 등록을 마친 사람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을 위해 입국 후 출입국서비스센터나 전국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방문해 별도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였는데요, 지난 '25. 11월부터 입국심사장에 자동출입국 등록센터를 설치하여 입국 시 현장에서 등록 후 바로 자동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 입국장 자동심사등록센터 이용 가능 국가

- '25.12부터 이용 가능 국가(18개국) 독일, 대만, 홍콩, 마카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핀란드, 포르투갈, 체코, 네덜란드, 헝가리,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일본,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
- '26.03.16부터 유럽 및 북미 지역 24개국 추가 유럽 연합(EU) 19개국(그리스, 벨기에, 스웨덴, 스페인, 오스트리아, 폴란드, 아일랜드, 루마니아 등),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캐나다



#### Q. SES를 진행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선영탁 반장** '한국의 자동심사등록센터'에 대한 내용이 담긴 싱가포르 SNS 계정이 공유된 적 있는데, "한국여행 1시간 더 하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만큼 자동출입국심사가 빠르고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생각이 자부심이 생기더라고요.

#### Q. 원활한 운영을 위해 특히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전하경 반장** 아직 SES에 대해 모르는 승객에게 안내문 배부나 직접 안내를 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아 '안내'를 가장 신경쓰고 있습니다. 특히 재방문하는 외국인들의 빠른 심사를 가장 큰 목표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재입국 승객에 대한 안내도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Q. 출입국 심사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박소현 반장** 지루한 절차를 빠르게 끝내고 싶은 마음이 크실거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해결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 노력의 일환이 자동출입국심사입니다. 승객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인천공항에서의 경험이 고국에 도착하신 분이나, 여행을 오신 분에게 설렘으로 남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 재외동포 체류자격 하나로 통합된다

## 출신 국가와 관계없이 F-4 비자 적용

법무부는 지난 2월 12일부터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제도를 시행했다. 이 제도는 한국에 거주하거나 한국에 오려는 동포들이 차별 없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조치는 오랫동안 동포 사회에서 희망해 온 정책으로 약 86만 명의 국내 체류 동포들에게 중요한 변화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3가지 주요내용



01

먼저, 기존의 동포 체류자격 제도를 하나로 통합했다. 그동안 동포들은 방문취업(H-2)과 재외동포(F-4) 두 가지 체류자격을 이용해 왔다. 하지만 출신 국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체류자격이 달라 차별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동포들은 출신 국가와 관계없이 재외동포(F-4) 자격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기존 방문취업(H-2) 비자의 신규 발급은 중단되며, 현재 H-2 자격을 가진 사람도 체류기간이 남아 있어도 F-4 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다.



02

재외동포의 취업 기회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재외동포(F-4) 자격을 가진 사람의 취업이 일부 직종에서 제한되었다. 앞으로는 인력 부족이 심한 일부 직종에 대해 취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건설 현장의 단순 작업, 물류 하역 작업, 포장 작업 등 일부 직종에서 동포들이 일할 수 있게 된다.



03

법무부는 동포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한국어 능력과 사회 참여 활동을 장려하는 제도도 함께 마련했다. 한국어를 잘하거나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성실하게 이수한 경우에는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더 긴 체류기간이 부여된다. 또한 한국어 능력이 우수하거나 자원봉사 활동을 꾸준히 한 동포에게는 영주권(F-5) 신청 시 혜택도 제공된다. 소득 기준을 완화해 장기적으로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이다.

# Effective February 2, 2026, the Ministry of Justice will implement ‘Overseas Korean Status Consolidation Policy,’ applying the same standards for all countries.

## 1 The two different visas for overseas Koreans will be consolidated into the Overseas Korean (F-4) visa.

### 1 Same Standards for All Countries



The period of stay (up to 3 years) will be granted based on Korean language proficiency and the enrollment/completion of the Korea Immigration & Integration Program (KIIP).



Individuals with a criminal record involving murder, rape, drugs, or voice phishing are ineligible for the F-4 visa.

### 2 Issuance of Overseas Korean (F-4) Visa



Current Work and Visit (H-2) visa holders may change their visa status to F-4 visa by submitting a ‘Consolidated Application Form.’

- ※ Additional documents may be required during processing
- ※ Online Application is available via Hi, Korea(www.hikorea.go.kr).

#### Please note

- Issuance of Work and Visit (H-2) visa will be suspended.
- Current H-2 visa holders may remain in Korea until their allowed period of stay expires.

## 2 F-4 visa holders will be eligible to work in a broader range of occupations.

F-4 visa holders will now be able to engage in 10 occupations that were previously restricted.

### 10 Newly Permitted Occupations

construction laborer	mining laborer	loading/unloading laborer	loading/unloading laborer (miscellaneous types)	manual packaging laborer
manual labeling laborer	gas station attendant	store shelf stocker	parking attendant	vending machine attendant


## 3 Benefits will be provided to individuals with high Korean proficiency or outstanding volunteer records.



Individuals who demonstrate high Korean language proficiency or an outstanding record of volunteer work will be eligible for relaxed income requirements\* when applying for Permanent Resident (F-5) visa.

- \* High Korean language proficiency (completed KIIP level 5): at least 70% of the previous year's GNI per capita.
- Volunteer work experience of 100 or more hours within the previous 6 months: at least 80% of the previous year's GNI per capita.

### For more information

 Immigration Contact Center under the Ministry of Justice  
(Call **1345**, without area code; interpretation available)

 Hi, Korea website  
[www.hikorea.go.kr](http://www.hikorea.go.kr)

 Overseas Korean Residency Support Centers designat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23 locations nationwide)

# 不分国籍，同胞同标

## 韩法务部“同胞整合政策”

### 2026年2月12日正式启航

## 1 合二为一：原两种韩裔外籍同胞滞留资格合并为在外同胞(F-4)

### 1 不论国籍，均采用统一标准



滞留期限最长为3年，具体视韩语能力及社会整合项目参与及修毕情况而定



凡有杀人、强奸、涉毒、电信诈骗等犯罪记录者，不得取得在外同胞(F-4)资格

### 2 均可变更为在外同胞(F-4)滞留资格



现持有访问就业(H-2)资格人员，可通过提交“综合申请表”转换为在外同胞(F-4)滞留资格  
※ 根据审核情况，可能要求申请人补充材料  
※ 支持HI KOREA网上办理  
[www.hikorea.go.kr](http://www.hikorea.go.kr)

#### 温馨提示

不再发放访问就业(H-2)签证，原持有访问就业(H-2)资格者，可在其滞留期限内继续在韩滞留

## 2 放开限制：扩大在外同胞(F-4)就业范围

放开原先限制在外同胞(F-4)资格持有人从事的10种职业

**10**种职业  
放开限制

建筑业普通工

采矿业普通工

装卸搬运工

其他装卸搬运人员

手工包装工

手工贴标工

加油员

理货员

停车场管理员

自动售货机管理员

## 3 政策优惠：对韩语能力优秀者及优秀志愿者给予政策优惠




韩语能力优秀者及优秀志愿者申请永居(F-5)资格时，收入标准\*可予以放宽

\* 韩语能力优秀者(社会整合项目第5阶段修完者)：上年度人均国民总收入(GNI)的70%以上  
过去6个月内，志愿服务时长累计满100小时者：上年度人均国民总收入(GNI)的80%以上

### 政策咨询

 韩国法务部外国人综合咨询中心  
(拨打1345, 无需加区号, 有中文服务)

 HI KOREA官网  
[www.hikorea.go.kr](http://www.hikorea.go.kr)

 同胞滞留支援中心  
(由法务部指定, 全国23所)

# Министерство Юстиции с 12 февраля 2026 года (чт) вводит единые критерии для всех стран в рамках реализации политики

## “Интеграции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 1 Разрозненные категории статуса пребывания для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будут объединены в единый статус - “статус для зарубежны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F-4)”

#### 1 Ко всем странам будут применяться единые критерии.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уровня владения корейским языком, а также факта регистрации и прохождения программы социальной интеграции, статус пребывания будет предоставляться на срок до 3-х лет с возможными различиями по сроку.



Лица, имеющие судимость за убийство, изнасилование, наркотики, а также за мошенничество, не смогут получить статус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 (F-4).

#### 2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статуса пребывания F-4



Лица,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имеющие статус пребывания H-2, смогут изменить его на статус F-4 посредством подачи “интегрированного заявления”.

- \* В процессе рассмотрения могут потребоваться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документы.
- \* Подача заявления возможна в электронном виде через систему HiKorea [www.hikorea.go.kr](http://www.hikorea.go.kr)

#### Информация

Прекращена выдача новых виз “визит с правом на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о H-2”, при этом лицам, уже имеющим данный статус, разрешено пребывание в стране до максимально разрешённого срока.

### 2 Расширение сфер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а для лиц, имеющих статус F-4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ся расширение сфер трудов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для действующих обладателей статуса F-4.

Допущено расширение сфер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а по **10** видам профессий

Не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й рабочий в строительстве	не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й рабочий в горнодобывающе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рабочий по погрузке и разгрузке	прочие рабочие по погрузочно-разгрузочным работам	рабочий по ручной упаковке
рабочий по ручному наклеиванию этикеток	оператор автозаправочной станции(заправщик)	работник по поддержанию порядка в торговом помещении	работник парковки	обслуживающий персонал торговых автоматов

### 3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льгот лицам с высоким уровнем владения корейским языком и занимающимся волонтер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ью



В отношении лиц, обладающих высоким уровнем владения корейским языком, а также лиц с выдающимися показателями в сфере волонтер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при подаче заявления на получение статуса постоянного вида на жительства (F-5) применяется пониженный критерий дохода\*

\* Для лиц, успешно завершивших 5-й уровень программы социальной интеграции (с высоким владением корейским языком), устанавливается требование к доходу в размере не менее 70% валового национального дохода на душу населения (ВНД) за предыдущий год. Для лиц, имеющих подтвержденный опыт волонтер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в объеме не менее 100 часов за последние 6 месяцев, устанавливается требование к доходу в размере не менее 80% валового национального дохода на душу населения (ВНД) за предыдущий год.

#### Справочная информация

**Информационный центр для иностранных граждан Министерства Юстиции**  
(1345 без кода города,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услуга устного перевода)

Официальный сайт  
**HIKOREA**  
[www.hikorea.go.kr](http://www.hikorea.go.kr)

Центры поддержки зарубежны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назначенный Министерством Юстиции (23 центра по всей стране)

## 법무부,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발표



법무부는 지난 3월 3일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에는 해외 고급인재 유치, 민생경제 활성화, 안전한 국경관리, 국민이 공감하는 사회통합, 외국인 인권 보호까지 포괄하는 새로운 이민정책 방향과 기준이 담겼어요. 주요 내용을 살펴봐요.

### 1. 해외 우수인재 유치 확대 및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

- '톱티어(Top Tier) 비자' 발급 대상 확대 | 육성형 전문기술인력 비자(E-7-M, K-core 비자) 신설 |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선정
- 지역활력 소상공인 특례제 시범도입 | 농어업 숙련비자 신설 |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제 확대

### 2. 비자체계와 이민행정 혁신

- 취업비자체계 정비 | 대민서비스 통합 플랫폼 구축 | 출입국 민원 대행 활성화 | 외국인재 유치기관 등록제 도입 등

### 3. 외국인 유입, 과학적으로 설계

-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한 외국인 유입규모 산정 | 외국인력 유형별 임금요건(하한선) 설정을 위한 '외국인 임금 자문위원회' 설치·운영

### 4. 고위험 외국인 차단, 외국인 고용 성실기업 우대

- AI를 활용한 출입국심사 시스템 구축 | K-Trust 기업 인증제 도입

### 5. 이민자 통합 및 권익 보호 강화

- 동포 인식개선 사업 추진 | 사회통합프로그램 확대 |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법제화 등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자세히 보기  
2030 View details of  
the Future Strategy for  
Immigration Policy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인터뷰(KTV)  
Korea Immigration Service  
Interview with the Head of  
Department (KTV)

## Ministry of Justice Announces '2030 Future Strategy for Immigration Policy'



On 3 March, the Ministry of Justice announced the '2030 Future Strategy for Immigration Policy'. This policy sets out new directions and criteria for immigration policy, encompassing the recruitment of high-calibre talent from overseas, the revitalisation of the domestic economy, secure border management, social integration that resonates with the public, and the protection of the human rights of foreign nationals. Let's take a look at the key points.

### 1. Expanding the Attraction of Overseas High-Calibre Talent and Strengthening Regional Industrial Competitiveness

- Expanding the eligibility criteria for 'Top Tier' visas | Introducing a visa for skilled technical personnel in development sectors (E-7-M, K-core visa) | Selecting universities to train foreign care workers
- Pilot introduction of a special scheme for small business owners to revitalise local communities | Introducing a skilled visa for agriculture and fisheries | Expanding the seasonal worker scheme for contracted agricultural work

### 2. Innovation in the visa system and immigration administration

- Overhaul of the employment visa system | Establishment of an integrated public service platform | Promotion of agency services for immigration and emigration matters | Introduction of a registration system for organisations recruiting foreign talent, etc.

### 3. Scientifically designed foreign labour inflow

- Estimation of foreign labour inflow volumes through big data analysis |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 'Foreign Labour Wage Advisory Committee' to set wage requirements (minimum thresholds) by type of foreign worker

### 4. Blocking High-Risk Foreign Nationals, Favouring Companies that Employ Foreign Nationals in Good Faith

- Establishment of an AI-powered immigration screening system | Introduction of the K-Trust corporate certification scheme

### 5. Strengthening Integration and Protection of Immigrants' Rights

- Initiatives to improve perceptions of the Korean diaspora | Expansion of social integration programmes | Legislation to establish a council for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for foreign nationals, et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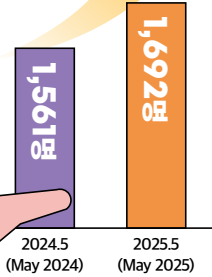
# 한국에 사는 외국인 169만 명 직장과 생활 모습은 어떨까?



2025년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자세히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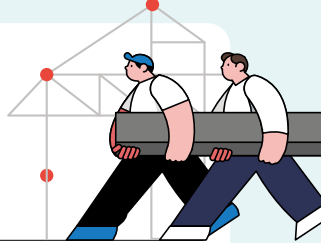
2025년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규모  
Number of foreigners residing in South Korea in 2025

8.4%  
incre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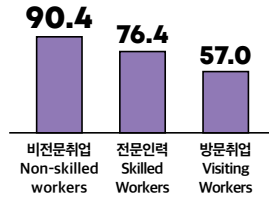
169만 명 1.69 million

남성의 비중은 비전문취업(90.4%)에서,  
여성의 비중은 결혼이민(79.5%)에서 가장 높아  
The proportion of men is highest in non-skilled employment (90.4%),  
whilst the proportion of women is highest among marriage migrants (7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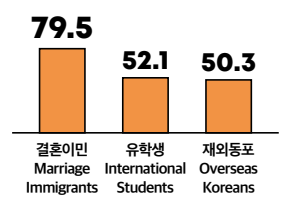


90.4% vs 79.5%

남성 비중 Proportion of mal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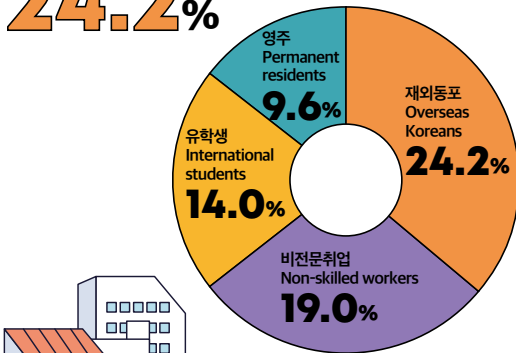
여성 비중 Proportion of Women



체류자격 중 가장 큰 비중  
The largest proportion of residency statuses

재외동포 Overseas Koreans

2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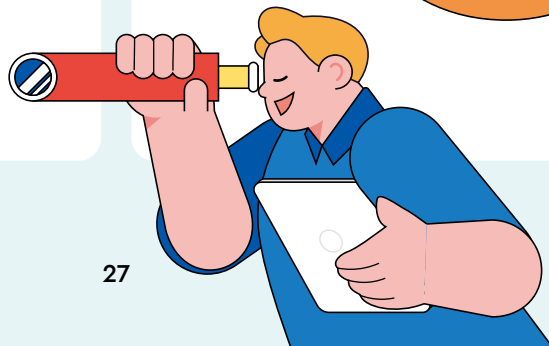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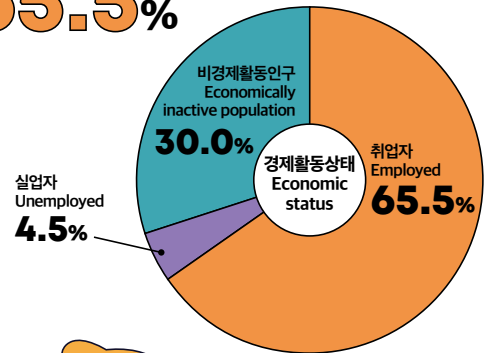


자료: 2025년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외국인 취업자 비율  
Proportion of foreign workers

취업률 Employment rate

65.5%



# 출입국관리 무대를 바다로 넓히다

법무부 최초 신조 감시정  
'부산진호' 취항 현장



부산항에서 열린 법무부  
감시정 '부산진호' 취항식 모습



취항식을 마친 부산진호가  
부산항 부두에 정박해 있다



부산진호 취항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법무부 최초의 신조 감시정 ‘부산진호’ 한눈에 보기

- 역할 해상 출입국 관리 및 국경 감시
- 임무 해상 밀입국 및 불법 출입국 대응
- 활동 지역 부산항 및 남해안 해역
- 성능·제원



부산항에서 해상국경관리 감시정 ‘부산진호’ 취항식이 열렸다. 부산진호는 해상 밀입국과 불법 출입국을 감시하고 해상 국경을 지키는 임무를 맡는다. 이번 취항은 출입국관리의 무대를 공항에서 바다로 확장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취항식에서 김현채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이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 해상 국경 관리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배

부산항의 겨울 바람이 차갑게 불던 날, 바다 위에 새로운 배 한 척이 모습을 드러냈다. 검푸른 바다 위에 단정하게 정박한 선박의 이름은 ‘부산진호’. 법무부에서 건조한 첫 번째 감시정이자,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신규 감시정으로 해상 국경 관리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배다.

부산진호 취항식은 지난 2월 6일 부산연안유람선부두에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법무부 장관과 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 해양경찰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새로운 감시정의 출항을 함께 축하했다. 참석자들은 선박 앞에 모여 취항을 기념하는 테이프 커팅과 선박 소개를 함께 지켜봤다.



정성호 장관을 비롯한 행사 참석자들이 부산진호 선박 내부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 역사적 취항, 해양 국경관리 임무 이어 받는다

행사장에는 해상 현장 중심 출입국관리 기능을 수행할 선박을 바라보는 기대와 책임감이 동시에 느껴졌다. 부산진호의 취항은 국내 최대 항구 부산항을 관할하는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의 숙원 사업이기도 했던 터. 앞서 법무부는 2022년 관세청에서 감시정 2척을 인계받아 사용해 왔다. 이후 지난 3년여간 부산항 해상국경관리업무를 수행, 위변조 선원수첩을 행사한 약 100여 명의 외국선원을 적발하는 등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런 가운데 1년여 간의 건조공정을 거쳐, 이날 법무부 제1호 신조 감시정으로 부산진호가 역사적인 취항을 하게 된 것이다.

## 야간·악천후에도 신속한 현장 대응

부산은 국제 항만이 위치한 곳으로 많은 선박과 사람들이 오가는 중요한 관문이다. 최근 부산항을 출입하는 국제선

# BUSANJIN-HO

부산진호를 통해 해상 밀입국이나 불법 출입국을 예방하고,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출입국 관련 상황에 대응한다.



박 및 크루즈선도 증가 추세에 있다. 이에 법무부는 부산진호를 통해 해상 밀입국이나 불법 출입국을 예방하고,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출입국 관련 상황에 대응한다.

부산진호는 총 39톤, 전장 22.7m의 최첨단 알루미늄합금 선체로 최대 30노트의 고속 기동력과 450해리(약 833km)에 달하는 광범위한 항속거리 성능을 갖췄다. 참고로 부산진호의 제원은 해양경찰에서 운용하는 소형 함정 중 30톤급 순찰정과 유사한 수준이다.

최신 항해·통신 장비를 탑재해 야간 및 악천후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운항과 신속한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만큼, 부산항 일대 해상 출입국관리의 실효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부산 외항에 정착한 선박에 대해 촘촘한 해상 승선검색 업무 수행도 가능해졌다.

**“부산진호의 취항은 출입국관리의 무대를 공항에서 바다로 확장하는 중요한 계기이며, 국제교류와 물류가 집중되는 항만에서도 안전과 질서가 조화를 이루는 국경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부산진호 취항식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



이날 취항식 이후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서 항만·해상 국경관리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 공항에서 바다로 출입국관리 무대 ‘확장’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참석자들은 직접 선박 내부를 살펴 보며 감시정의 시설과 장비를 확인하기도 했다. 선박 내부에는 해상 감시 활동을 위한 장비와 승무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었다. 바다 위에서 장시간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만큼 안전과 효율성을 고려해 설계된 것이 특징. 이날 취항식에서 관계자들은 부산진호가 앞으로 수행하게 될 임무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이번에 명명된 신규 감시정 ‘부산진호’는 부산 해역의 관문을 지켜온 역사적 방어 거점인 ‘부산진’에서 이름을 따온 것으로, 해양 감시와 항만 질서 유지를 수행하는 감시정의 임무와 역사적 의미를 반영했습니다. 부산진호의 취항은 출입국관리의 무대를 공항에서 바다로 확장하는 중요한 계기이며, 국제교류와 물류가 집중되는 항만에서도 안전과 질서가 조화를 이루는 국경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취항식 이후 부산진호는 해상국경관리의 최전선에서 본격적인 임무 수행에 들어간다. 해상에서 이루어지는 출입국 관리와 국경 감시를 맡는 ‘움직이는 관문’. 국경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다에서 그 경계를 지키는 역할을 하게 될 부산진호의 활약을 기대해 본다. 🇰🇷

# 잘 버리는 문화가 도시를 만든다

## 분리수거로 읽는 한국 사회

쓰레기를 버리는 방식은 그 나라의 문화와 시스템을 보여줍니다. 한국을 비롯해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분리수거를 하는지 알아봐요.

### 한국 | 자원 재활용을 높이는 시민 참여 방식

한국의 분리수거는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하나의 사회 시스템입니다. '쓰레기 종량제'를 중심으로 자원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배출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분류가 이루어지는데요. 한국 분리수거의 핵심은 네 가지 원칙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비운다, 행군다, 분리한다, 섞지 않는다'.

내용물을 비우고 깨끗이 씻은 뒤 재질별로 나누어 버리는 것이 기본입니다. 품목별 기준도 세세하게 나누어 있어요. 일반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고, 음식물 쓰레기는 물기를 제거해 전용 용기에 따로 버립니다. 투명 페트병은 라벨을 제거하고 납작하게 눌러 따로 분리해야 하고, 종이팩과 일반 종이도 다르게 분류합니다. 비닐류 역시 깨끗한 것만 따로 모아 배출해야 하고요.

이처럼 한국은 배출 단계에서부터 세밀한 분리 기준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쓰레기 배출 시간과 방법이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고,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관리도 엄격합니다. 헛갈리는 품목이 있다면 '내 손안의 분리배출'과 같은 디지털 앱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 한국 분리수거 핵심 가이드



01

#### 비운다

용기 안 내용물을 완전히 비운 뒤 배출



02

#### 행군다

음식물 등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



03

#### 분리한다

라벨, 뚜껑 등 다른 재질은 따로 분리



04

#### 섞지 않는다

재질과 종류별로 구분해 배출

### 주요 품목별 배출 방법

<b>일반 쓰레기</b>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b>음식물 쓰레기</b> 물기 제거 후 전용 용기에 배출	<b>투명 페트병</b> 라벨 제거 → 압착 → 별도 배출	<b>종이류</b> 묶어서 배출, 종이팩은 별도 분리	<b>비닐류</b> 깨끗한 것만 재활용, 오염 시 일반 쓰레기
--------------------------------	-------------------------------------	-------------------------------------	----------------------------------	---------------------------------------



헛갈리는 품목이 있다면? '내 손안의 분리배출' 앱으로 확인해요!

# KOREA

# 세계는 어떻게 변할까

# ABROAD

세계는 지금, 나만마다 속도는 다르지만 자원을 다시 사용해 지구를 지키려는  
하나의 방향을 향하고 있어요.

## Case 01 | 중국 | 색으로 나누는 분리수거

중국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분리수거 제도를 빠르게 정착시키고 있어요. 한국과 달리 종량제 봉투는 없고 쓰레기통 색상으로 구분하는 방식이 특징입니다. 파란색(재활용품), 초록/갈색(음식물 쓰레기), 빨간색(유해 쓰레기), 검정/회색(기타 쓰레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특히 '돼지 기준 분류법'이라는 쉬운 설명이 널리 알려져 있어요. 돼지가 먹을 수 있는 습식, 못 먹으면 건식, 돼지가 먹으면 죽는 유해, 팔아서 돼지를 살 수 있으면 재활용 쓰레기라는 설명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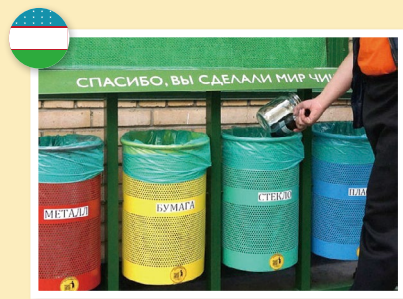


## Case 02 | 베트남 | 3대 분류 체계로 전환 주

베트남은 2025년부터 분리수거 의무화를 시행했어요. 기존에는 쓰레기를 한데 모아 버리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현재는 재활용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기타 쓰레기 3대 핵심 분류 체계로 전환 중이라고 해요. 한국처럼 분리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수거업체가 쓰레기 수거를 거부할 수도 있대요. 다만 아직은 시설과 장비가 부족해 제도는 시행 중이나 현장은 변화 중인 단계입니다.

## Case 03 | 우즈베키스탄 | 빠르게 바뀌는 분리수거 시스템

우즈베키스탄은 최근 분리수거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어요. 특히 수도 타슈켄트를 중심으로 색상별 분류 체계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노란색은 재활용, 초록색은 음식물, 빨간색은 일반 쓰레기입니다. 최근에는 쓰레기 수거 비용 온라인 결제, CCTV 감시 시스템, 시민 신고 보상제 등이 도입되며 관리가 강화되고 있어요. 기업에도 재활용 책임을 부여하는 등 국가 차원의 환경 정책이 확대되는 중입니다.



## Case 04 | 일본 | 가장 철저한 분리수거 국가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분리수거 체계를 가진 나라 중 하나예요. 특히 지자체마다 규칙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 기준이 매우 중요하죠. 기본 분류는 타는 쓰레기, 타지 않는 쓰레기, 자원 쓰레기, 대형 쓰레기로 구분하고요. 페트병은 반드시 '내용물 제거 → 세척 → 라벨·뚜껑 분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또한 배출 시간도 엄격해 당일 아침 정해진 시간 이전에 배출할 수 있어요. 대형 쓰레기는 스티커를 구매해 부착해야 하는 건 한국과 비슷해요. ♻️

# KIS NEWS

2026.  
SPRING  
Vol. 75

## 01

### 법무부,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발표

“인재를 귀하게, 민생경제를 활기차게, 국민은 안심하게”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3월 3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국민주권정부의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저출생·고령화의 구조적 심화와 산업·기술 환경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이민정책이 기존의 저숙련·저임금 외국인근로자 유치 활용 방식에서 벗어나 중장기 국가전략 차원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방향에 따라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마련했다. 이번 전략에는 해외 고급인재 유치, 민생경제 활성화, 안전한 국경관리, 국민이 공감하는 사회통합, 외국인 인권 보호까지 포괄하는 2030년까지의 이민정책 방향과 기준 등이 담겼다. (▶ 26p)

####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주요내용

- ▶ 국민 일자리·근로조건(임금) 보호를 위한 '외국인력 적정 임금요건' 설정
- ▶ 제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육성형 전문기술인력' 제도 도입
- ▶ 최고 우수인재의 국내 정착을 종합 지원하는 '톱티어 비자' 대상 확대
- ▶ 인구감소지역에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지역활력 소상공인 특례제' 도입
- ▶ 우수 계절근로자가 장기간 일할 수 있는 '농·어업 숙련 비자' 신설

## 02

### 법무부, 전문대학 내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16개 시범지정

전문대학 유학생 우수 인재로 양성한다



법무부는 2월 5일 전문대 유학생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16개 전문대학에 학교당 1개 학과씩 '육성형 전문기술학과'\*를 시범 지정하고, 3월 26일 현판 및 지정증 수여식을 개최했다. '육성형 전문기술학과'는 한국어 능력과 전문 기술력을 겸비한 유학생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지역 제조업 현장의 핵심 인력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이번에 지정된 '육성형 전문기술학과'에 입학하는 유학생에게는 한국어 요건(TOIPK 3급)을 갖춘 경우 유학 비자발급 시 필요한 재정능력 요건이 면제되며,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도 현행 30시간에서 35시간으로 늘어난다. 또한 졸업 후 전공 관련 업체에 취업 시에는 취업비자(E-7-M)를 발급하며, 향후 거주(F-2) 자격 신청 시에도 우대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16개 대학: 경기과학기술대, 대림대, 부천대, 서정대, 오산대, 용인예술과학대, 영진전문대, 구미대, 경남정보대, 동의과학대, 부산과학기술대, 거제대, 울산과학대, 군장대, 전주비전대, 목포과학대

# 03

## 법무부장관, 신규 감시정 '부산진호' 취항식 현장 방문 해상까지 빈틈없는 국경관리



법무부는 2월 6일 부산연안유람선부두에서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신규 감시정 취항식을 개최하고, 해상 출입국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감시정의 본격적인 운항 시작을 알렸다. 이날 취항식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항만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에 취항한 신규 감시정 부산진호는 부산항을 출입하는 국제선박 및 크루즈선 증가에 대응해 해상 출입국심사 지원, 외항 정박 선박 관리, 무단이탈 예방 등 해상 현장 중심의 출입국관리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참석자들은 신규 감시정 취항을 축하하고 항만·해상 국경관리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28p)

# 04

## 2026년 연간 비자 발급규모 공표

- ① 숙련기능인력(E-7-4) 연간 발급규모 3.3만 명으로 조정
- ② 금형원 기능인력(E-7-3) 비자 시범도입 추진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입니다

법무부는 '2026년 연간 비자 발급규모'를 2월 10일 공표했다. 이번 공표는 외국인 유입이 지역경제와 국민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2026년 숙련기능인력(E-7-4) 비자의 연간 발급규모를 3만 3천 명으로 조정했다. 이는 최근 비자 전환 추이, 산업 수요, 관계부처 의견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전년(3만 5천 명)보다 소폭 하향 조정된 규모다. 고령화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금형원을 대상으로 한 일반기능인력 비자(E-7-3)의 시범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외에 요양보호사, 송전전기원 등 이미 시범운영 중인 직종과 계절근로·비전문취업 비자 등은 외국인력 수요와 체류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연간 발급규모를 관리할 방침이다.

# 05

## 법무부,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제 확대 운영

2026년 시범사업으로 4개 시·군(무안군·장흥군·익산시·홍성군) 추가 선정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입니다

법무부는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 계절근로자를 고용해 농가의 농작업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제 시범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지난 2차 사업 공모에는 8개 시·군에서 총 11개 법인이 신청했으며, 사업자 요건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해 4개 법인을 추가로 선정했다.

농작업 위탁형 시범사업은 지난해 포천시와 의령군을 1차로 선정한 이후 이번엔 4개 시·군을 추가 선정, 총 6개 법인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실시한다. 농작업 위탁형 사업자는 농작업 위탁 계약에 따라 농가에서 의뢰한 농작업을 직접 수행하고 계절근로자의 농작업을 직접 관리해야 하며, 사업자의 주요 농작업 대행 수수료는 지자체·사업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법무부는 법인에서 임금체불,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계절근로자 배정을 취소하는 등 엄격히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1·2차로 선정된 사업자에 대한 사전교육과 현장점검, 운영실적 평가 등을 통해 우수한 사례가 확산할 수 있도록 내실화한다. (▶)

#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무엇이 달라지나요?



## 더 궁금한 점은?

### 자세한 내용 확인

####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공지사항(동포 체류자격 통합시행 안내)



### 추가 문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국번없이 **1345**

상담과 통역 지원

### 상세 안내와 고충 상담

#### 동포체류지원센터

전국 23개



### Q 동포 체류자격 통합이란 무엇인가요?

A 그동안 동포는 '방문취업(H-2)'과 '재외동포(F-4)' 등 서로 다른 체류자격을 사용했어요. 이제는 출신 국가와 관계없이 '재외동포(F-4)' 자격으로 통합됩니다.

### Q 기존 H-2(방문취업) 비자는 어떻게 되나요?

A '26. 2. 12.부터는 새로 발급되지 않습니다. 이미 H-2 비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본인의 체류기간 상한까지 정상적으로 국내에 체류할 수 있고, 체류기간이 남아 있어도 F-4로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 Q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 시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A 방문취업(H-2) 자격에서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변경 신청 시 '27. 12. 31.까지 자격변경 수수료(10만원)가 면제됩니다.

### Q F-4 비자를 받으면 어떤 점이 좋아지나요?

A 취업 활동 등을 하며 더 안정적으로 오래 한국에 머물 수 있어요.

### Q 취업할 수 있는 일도 달라지나요?

A 일부 직종에서 취업 기회가 넓어졌습니다. 기존에는 제한이 있었지만, 이제는 인력 부족이 있는 일부 분야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ex. 건설 현장 단순 작업, 물류·포장 작업)

### Q 체류기간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개인 조건에 따라 최대 3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어 능력을 입증한 경우,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더 유리해요.

### Q 영주권(F-5) 신청에도 도움이 되나요?

A 네, 도움이 됩니다. 한국어 능력이 좋거나 사회 참여 활동(ex.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면 영주권 신청 시 조건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 Consolidation of Overseas Compatriot

## Residence Status (F-4):

### What Will Change?



#### Any further questions?

Announcements on the HiKorea website



Foreigners' Comprehensive Information Centre:

**1 3 4 5**

(no area code required)

23 Overseas Compatriot Residence Support Centres nationwide



#### **Q** What is the consolidation of overseas compatriot residence status?

**A** Until now, overseas compatriots have used different residence statuses, such as 'Visitor for Employment (H-2)' and 'Overseas Compatriot (F-4)'. From now on, regardless of their country of origin, they will be consolidated under the 'Overseas Compatriot (F-4)' status.

#### **Q** What will happen to existing H-2 (Visitor Employment) visas?

**A** From 12 February 2026, new H-2 visas will no longer be issued. Those who already hold an H-2 visa may remain in the country normally until the end of their permitted stay, and may apply to switch to F-4 status even if their current stay period has not yet expired.

#### **Q** What are the fees for changing to Overseas Korean (F-4) status?

**A** When applying to change from Visitor-Worker (H-2) status to Overseas Korean (F-4) status, the status change fee (100,000 won) is waived until 31 December 2027.

#### **Q** What are the benefits of obtaining an F-4 visa?

**A** You can stay in Korea for a longer period with greater stability whilst engaging in employment activities.

#### **Q** Will the types of jobs I can take up change?

**A** Employment opportunities have expanded in certain sectors. Whilst there were previously restrictions, you can now work in certain fields experiencing labour shortages (e.g. unskilled labour on construction sites, logistics and packaging work).

#### **Q** How long can I stay?

**A** Depending on individual circumstances, you can stay for up to three years. It is particularly advantageous if you can demonstrate Korean language proficiency or have participated in social integration programmes.

#### **Q** Does this help with applying for permanent residency (F-5)?

**A** Yes, it does. If you have good Korean language skills or consistently engage in social participation activities (e.g. voluntary work), the conditions for applying for permanent residency may be relaxed.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핫한 소식을 만나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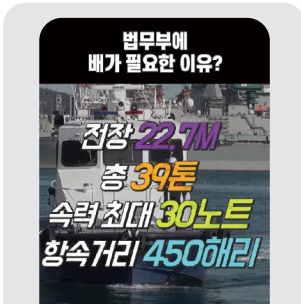
법무부 감시정  
부산진호 취항식



출입국 공무원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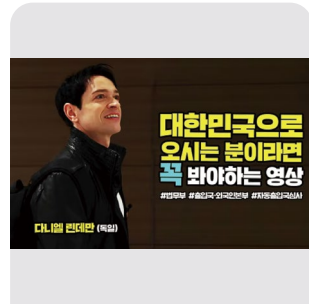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의 입국심사  
가 빨라집니다!



드디어, 법무부 역사상 첫 신규 건조 감시정 '부산진호' 취항!  
부산진호는 외국인의 출입통제, 해상감시, 질서유지 등 복합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출입국 공무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의심 사례가 재차 접수되어 안내드립니다. 법무부와 출입국·외국인관서는 절대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법무부는 출입국 절차 간소화 및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지난 3월 16일부터 자동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는 국가를 42개 국가(지역)로 확대했어요.

## 제63회 법의 날 기념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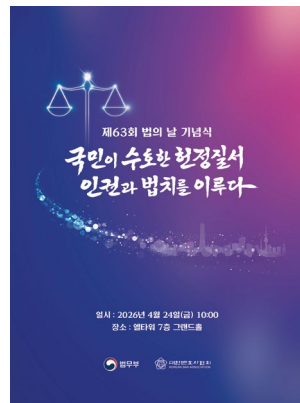
매년 4월 25일은 우리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의 정신을 되새기는 '법의 날'입니다.

1958년 미국에서 최초로 5월 1일을 '법의 날'로 지정하였고, 1963년 7월 제1차 세계법률가 대회에서 '법의 날' 제정을 세계 각국에 권고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1964년 4월, 5월 1일을 '법의 날'로 지정하였고, 2003년

2월, 근대적 사법제도의 도입계기가 된 갑오개혁 때 제정된

「재판소구성」(재판소구성법)이 시행된 4월 25일로 기념일자를 변경하였습니다.



# KIS EVENT

## EVENT 1 사진 공모



독자 여러분의  
'한국에서 만든 고향 음식'을  
소개해주세요

- **공모 주제** 한국에서 만든 내 고향 음식
  - ※ 타인 사진 제출에 따른 저작권 위반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인물 사진은 초상권 침해 우려가 있으니 사전동의를 받아 제출해 주세요.
- **참여 기간** 2026년 6월 5일(금)까지
- **제출 방법** 사진 파일과 추가정보(이름, 연락처, 작품 제목과 설명, 촬영 날짜)를 다음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moonki2021@daum.net](mailto:moonki2021@daum.net)
- **당첨자 발표** 2026년 6월 중 개별 통보
- **이벤트 혜택** <공존> 여름호 게재 및 소정의 상품 지급

## EVENT 2 독자 설문조사 & 퀴즈 풀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공존> 2026년 봄호를 보신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고, 퀴즈 정답을 맞춰 주세요.

### QUIZ

다음 중 대한민국 전자입국신고(e-Arrival card) 공식 사이트 이미지는?

- ①
- ②
- ③

- **참여 기간** 2026년 6월 5일(금)까지
- **참여 방법** 아래 QR코드를 찍고 설문 참여, 퀴즈 정답 입력 후 제출하기





2026. 5. 20. (수)  
용산아트홀 대극장 미르

# 제19회 세계인의 날

The 19<sup>th</sup> Together Day

포용으로  
넓어지고,  
다양성으로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